

누가 지구의 미래를 훑치는가

'지구의 날' 맞아 지구환경보호 관련서에 관심 늘어

사회발전의 척도였던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밭 밟고 사는
지구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야생동물의 생태이상,
인간의 정자 수 감소,
열대우림의 소멸과 대기의
이산화탄소 증가,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의
오염은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의 날' 을 맞아 서점가에
선보인 지구환경 보호
관련서들을 살펴본다.

제27회 '지구의 날(4월 20일)'을 맞아 지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북돋우는 책이 눈에 띈다. 90년대 초반에 비해서 그 양은 적지만, 이들 책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변영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그간의 사례와 연구결과를 집대성해 보여준다. 또한 이전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단순한 실천 사항을 모아낸 데서 나아가 환경문제 뒤에 깔린 공존·공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재앙

최근 출간된 《도둑 맞은 미래》(사이언스 북스)와 《지구온난화를 생각한다》(소화)는 인간 사회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발전의 척도가 되던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무서운 미래를 경고한 책이다. 이 책은 '환경보호'라는 당위적인 구호에 힘을 실어주는 탄탄한 증거자료다.

각기 동물학자와 저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테오 콜본, 존 피터슨 마이어, 다이앤 듀마노프스키가 7년간 조사하고, 함께 쓴 《도둑맞은 미래》는 195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야생동물의 생태 이상을 보고하면서 그 이유를 역추적해간다. 플로리다 해안의 대머리독수리가 짝짓기에 보이는 무관심, 미시간호에서 잡은 물고기로 키운 명크의 폐사, 아포카호에 서식하는 악어들의 생식기 변화, 북유럽의 바다표범 몰사, 영국의 수달 격감, 지중해의 줄무늬 돌고래 몰사.

하지만 현실은 동물들의 세계에서 곧 인간세계로 돌아온다. 1992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닐스 스키케백 박사는 인간 정자수가 지난 50년간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정자의 기형도 증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탐정이 수사하듯 흥미진진하게 캐들어가 밝혀낸 원인은 호르몬저해 화학물질의 체내 축적이다. PCB, DDT, DES, 다이옥신 등의 합성 화학물질이 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 이같은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도 그 존재를 모르는 화학물질이 아직 많으며, 그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미 우리 몸안에 심각할 정도의 화학물질의 축적이 진행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은 섬뜩하기까지



한살림 '매뚜기잡기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

하다. 우리가 일구었다고 믿는 지구의 변영과 풍요는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훑쳐서' 이룩한 것이다.

화석연료의 대량소비와 열대우림의 소멸이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를 생각한다》 역시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미래의 불행을 많은 증거를 통해 보여준다. 금세기 최고의 성장이론가 중의 하나였던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반성하고 발표한 책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구온난화는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대량소비가 원인의 4분의 3을, 총 3,600만㎤ 가운데 매년 20만㎤ 별채되는 열대우림의 파괴가 4분의 1의 책임을 맡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화석연료의 연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6%나 높였다. 그 결과 진행된 온도 상승은 산업혁명 후 300년 동안 약 3~4℃에 이른다. 이것은 지구가 마지막으로 겪은 빙하기인 뷔름기부터 1만년 사이에 진행된 평균기온 상승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또 1988년 유례없는 이상기온으로 미국의 중서부 곡창지대가 겪은 농작물 피해, 남·

북극의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부암 증가, 90년 플로리다의 금세기 최대 허리케인, 93년 미시시피강의 대범람,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 피해 등이 모두 지구온난화의 결과라는 사실은 지구온난화가 곧 우리에게 가져올 재앙의 실체를 그려보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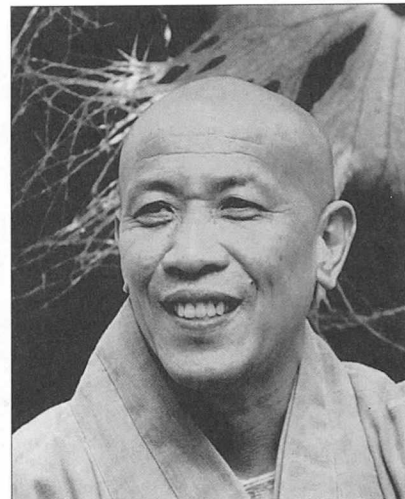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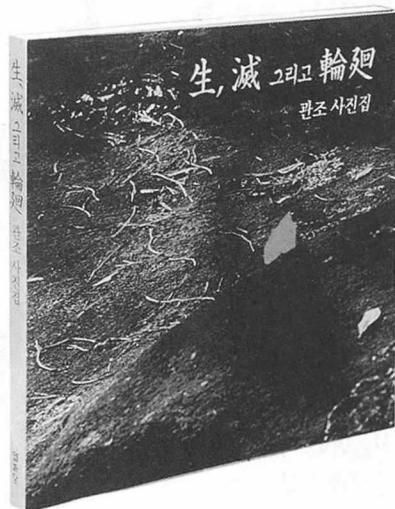
지구환경은 인류 생존의 문제

90년도부터 매년 출간된 《지구환경보고서》(뜨님)도 우리의 환경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짚어주는 책이다. 월드워치 리서치에서 매년 6월이면 펴내는 《지구환경보고서》를 바로 번역해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책은 특히 환경문제를 단순히 공기오염이나 수돗물 속의 중금속의 문제가 아닌 난민문제·군대문제·에이즈문제 등 인류생존 자체의 문제와 직결시키는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

본격적인 환경전문 출판사를 표방한 뜨님의 책들은 환경문제의 배면에 자리한 근본적 문제에 접근해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잇따라 출간한 《자동차, 문명의 이기인가 파괴자인가》(스기타 사토시 지음), 《노아씨의 정원》, 《한 시민의 쓰레기 연구》도 진지한 접근이 돋보이는 책들이다.

카메라에 담은 우주의 진리

사진집 《생, 멸 그리고 윤회》 펴낸 관조 스님



관조 스님.

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생, 멸 그리고 윤회>는 불경의 핵심이다. 제목 없는 일련의 사진들을 보노라면 부처의 진리에 한걸음 다서선 느낌이다. 작품들은 색조부터 속세의 것이 아닌 듯하다. 축축한 빗물에 자연이 막 생명을 얻으려 할 때, 살아 있는 것들이 빛을 받아 잠에서 깨어나려는 여명.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자연은 “생멸과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불이(不二)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의 강우방 관장이 <모든 것이 비로자나>라는 제목으로 단아한 글을 써, 작품 설명 하나 없는 관조 스님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길을 부드럽게 열어준다.

“스님의 사진에서는 모든 사물들이 빛을 낸다. 그 사물들은 빛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자체에서 빛을 발한다. 모든 것이 비로자나(진리)의 화신이니, 스님의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를 통하여 그러한 비로자나의 세계를 나타내 보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내가 쓴 글은 운문사의 정경들을 햇살 속에서 그렸으니 한갓 비로자나(빛)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표지에 쓰인 사진에서 사라져가는 잿더미 위에 우연히 놓인 나뭇잎은 생과 멸의 윤회를 깨닫게 한다.

— 김지원 기자

열화당/B5변형/144면/30,000원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자동차를 통해 현대 문명사회가 갖는 환경문제에 사회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자동차, ...》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인간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혼잡비용이나 대기오염·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사회적·생물적 약자로 대표되는 교통빈곤층의 양산 등은 교통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가지적인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보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자동차로 대표되는 현대의 물질문명이 사람들 사이의 공감, 즉 인간성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자동차는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탈것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평온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물론 생존권조차 빼앗아”간다. 뺑소니사고, 보행차리과정에서의 보행자 불이익관행에서 보는 인명경시풍조, 장애인들을 짐으로 몰아넣는 자동차화가 과연 발전의 옳은 방향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단순히 자동차가 가져오는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만은 아닐 것이다.

《노아씨의 정원》과 《한 시민의 쓰레기 연구》는 좀더 부드럽고 쉬운 어조다. 유네스코 스위스 국내위원회가 펴낸 책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번역·제작한 이 두 책은 교육적 효과를 염두에 두었다. 그냥 내버려 둔 정원의 잔디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기쁨을 맛본다는 이야기를 통해 지구가 직면한 생물의 절멸사태를 걱정하는 《노아씨의 정원》, 자신이 버린 쓰레기의 행로를 뒤쫓은 한 시민의 이야기를 통해 쓰레기 처리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들춘 《한 시민의 쓰레기 연구》는 생활태도에 변화를 유도한다.

지구를 아끼기 위해 쓰레기 분리는 필수. 그밖에도 전기·석유 등 연료소비를 줄일 것, 정원에는 땅을 죽이는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사용하고 지방의 토양에 적합한 고유 식물을 심도록 했다. 도시의 경우는 콘크리트와 도로포장을 자제하고 맨땅을 많이 허용하면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생물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영초씨가 쓴 《더럽게 살자》(두레시대)도 환

경문제가 “우리의 삶과 사상과 미래가 걸린 총체적인 문제이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진행될 만큼 진행됐고, 누대에 전이되기까지 하는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단지 환경친화적인 사고와 생활습관을 지님으로써 환경오염의 수준을 인간과 환경의 자정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로 국한시켜 생태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보다 환경오염을 알게 모르게 조장하는 자본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광고에서 읽어주고, 난지도·하수도·골프장·합성세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SF적 요소를 곁들인 미래이야기나 동화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환경교육을 강조해 어릴 때부터 환경친화적인 생활태도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환경 계몽서 최근 들어 주춤

한편, 최근 환경책은 생태학적 관심을 반영하는 새 흐름을 보여준다. 사라져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환기시키고 거기에 은근히 자연이 주던 유·무형의 이득을 곁들임으로써 역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현암사가 작업한 《우리가 알아야 할 ...》 시리즈 가운데 자연편을 필두로 한겨레신문사에서 펴낸 《이곳만은 지키자》, 웅진·계몽사 등 출판사들도 시리즈물 출간이 활발하다.

60년대 중반 발표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69년의 환경보호법안 제정과 미국 환경보호청 발족, 70년 지구의 날을 창립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책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 여러 출판사에서 시리즈 형식으로 쏟아지던 환경책이 이즈음 주춤해졌다. 해마다 발행해 오던 뚝님의 《지구환경보고서》도 96년도판이 발행되지 못했고, 환경교육서를 여러권 펴낸 김영사,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에 관한 책들을 출간한 푸른산, 산악전문출판사로 자동차와 환경오염에 관련된 책을 내던 수문출판사의 책들이 뜸해졌다. 찾는 이가 현저하게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 이현주 기자